

함께 걷는 자립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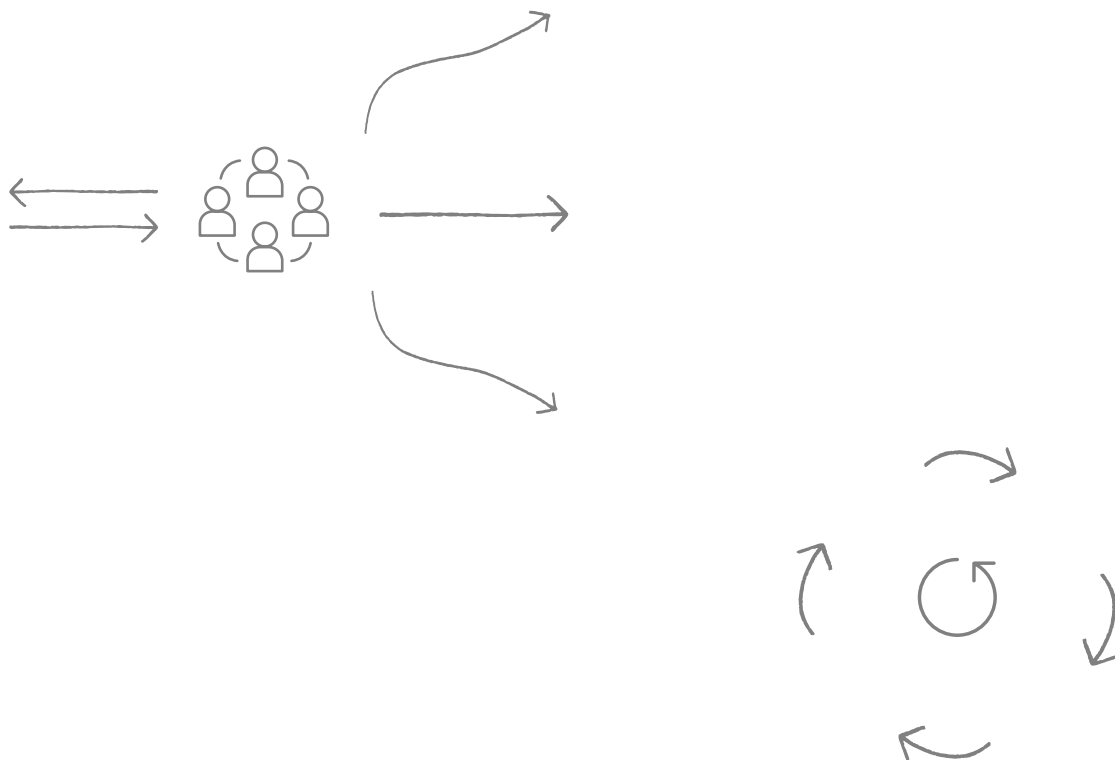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 6년의 이야기
(2015년~2020년)



함께 걷는 자립의 길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 6년의 이야기
(2015년~2020년)

본 보고서 발간을 포함한 "르완다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1단계(2015년-17년)와 2단계(2018년-20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파트너십(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박명광

발행처: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

집필/인터뷰: 우승훈, 정민주, 현정훈, TWAGIRAYEZU Aimable

디자인: 힐데와소피

주소: (우)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901호

대표전화: 02-747-7044

이메일: gcskorea@gcs.or.kr

홈페이지: <http://www.gcs.or.kr/>

페이스북(본부): [facebook.com/gcskorea](https://www.facebook.com/gcskorea)

페이스북(르완다): [facebook.com/gcsrwndaofficial](https://www.facebook.com/gcsrwndaofficial)

인스타그램: [@gcs_korea](https://www.instagram.com/gcs_korea)

목차

Part 1.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둘러보다

가. 지구촌나눔운동	05
나.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	06
다. 르완다 나루바카 섹터	08
라.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2015-2020) 개요	09

Part 2.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말하다

가. 사업 참여를 통한 나와 우리의 변화	11
나. 사업의 차별성	12
다. 10년 뒤의 나루바카	13

Part 3.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훑아보다

가. 사업을 그린 두 접근	15
나. 주요 활동	17
1) 자조그룹 조직·지원	17
2) 농업 역량강화	22
3) 성인문해교실	26
4) 코로나19 대응활동	29

Part 4. 자립을 함께 그리다/짓다

	32
--	----

Part 1.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둘러보다



가.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개발협력NGO로, 지구촌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8개 국가, 9개 사업소에서 지역 자립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의 주요 사업

지역자립사업		특별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농축산 지원	최취약계층 지원
주민 스스로가 마을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자조그룹, 마을발전위원회 등의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주민지도자를 교육합니다.  몽골 주민지도자교육	새로운 농사법이나 작물을 시도하는 시범농장을 운영하거나 가축 백신 접종 지원, 농축산 기술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농업과 축산 역량을 강화합니다.  미얀마 영농기술교육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난민이나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케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회적경제 지원	평생학습 지원	지구촌나눔운동의 사업 국가 아시아(5개국): 동티모르,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아프리카(3개국): 르완다, 에티오피아, 케냐
가축이나 농업 자금을 낮은 이자에 대출하여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설립이나 창업 지원을 통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 가축은행	학교 안과 밖에서, 아동부터 성인까지, 공동체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하여 학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르완다 마을도서관	

나.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는 2009년 설립되어 지난 10여 년간 남부의 농촌지역 나루바카 섹터에서 지역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립 초기에는 빈곤 가정에 암소 등의 가축을 대출하여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암소 은행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또한 마을과 학교에 각각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독서 교육이나 예체능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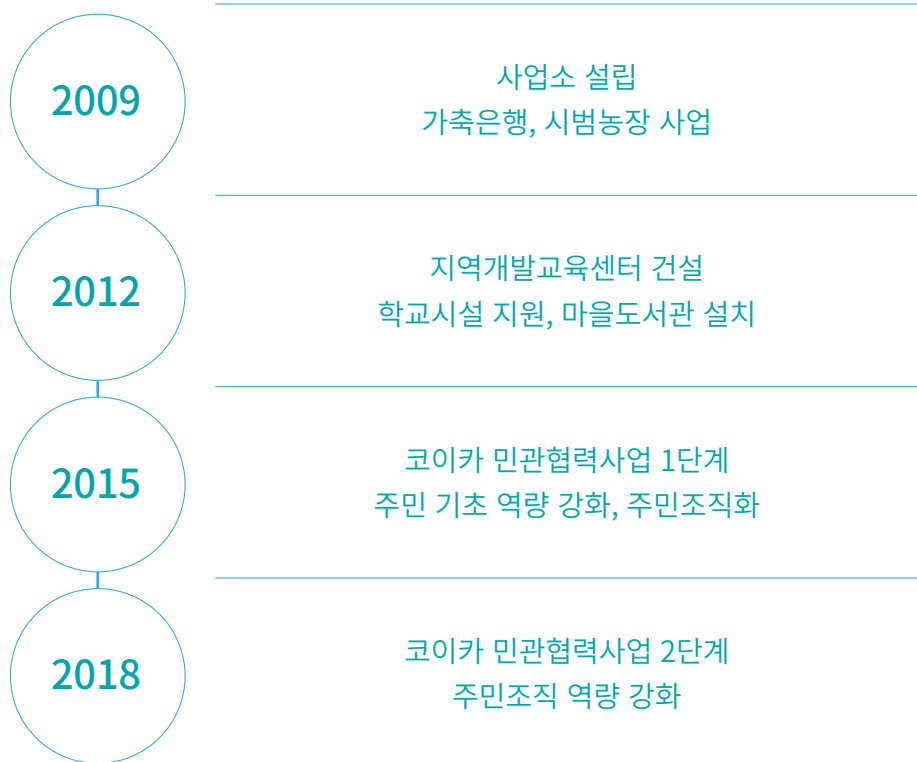
르완다사업소 사진



2014년에는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제안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개별의 생계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1단계 사업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2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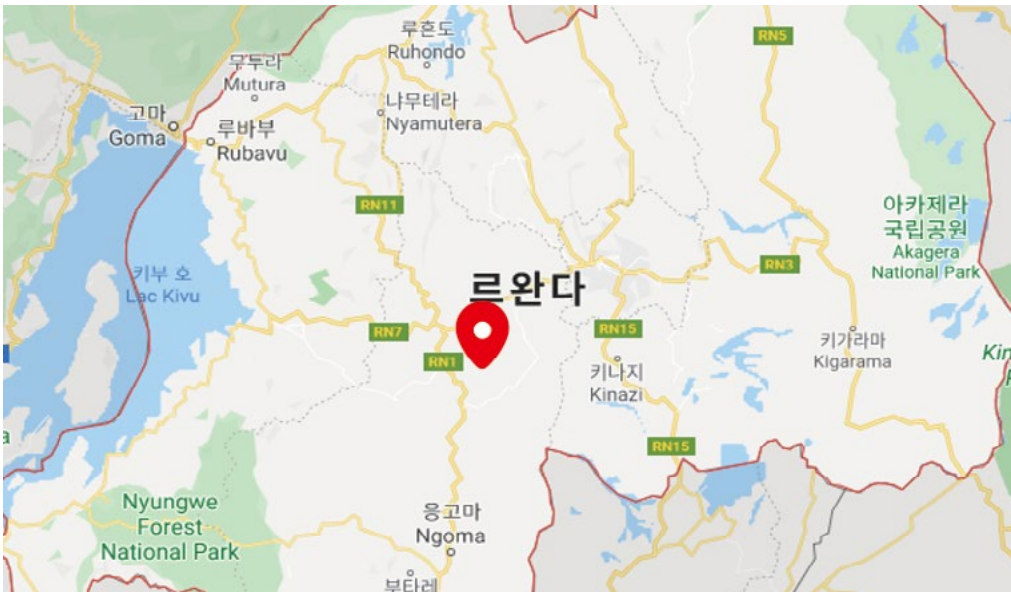
6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 나루바카 공동체는 자립과 자치를 위한 역량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지구촌나눔운동 르완다 사업소는 나루바카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주민조직과 서서히 나누고 있습니다.

르완다사업소 연혁



다. 르완다 나루바카 섹터

지구촌나눔운동의 사업지역인 나루바카는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남부 프로빈스의 카모니 디스트릭트에 속해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이 르완다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2009년, 르완다 정부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비전 2020 우무렝게 프로그램(Vision2020 Umurenge Programme)’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없었던 르완다 정부는 디스트릭트별로 가장 가난한 지역을 우선 도입 대상으로 삼았고, 카모니 디스트릭트는 2009년 나루바카 섹터를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 역시 르완다 정부로부터 나루바카 섹터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천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르완다 남부 프로빈스, 카모니 디스트릭트, 나루바카 섹터 Southern Province, Kamonyi District, Nyarubaka Sector		
인구 수 (2019년)	28,182명 (여성 14,883명, 남성 13,299명) ※ 가구수: 6,499가구 (가구당 약 4.3명)	면적	47km ² ※ 서울시 종로구의 약 2배 넓이
직업 분포	농업 80%, 상업 6%, 건설업 4%, 기타 10%	주요 작물	콩, 옥수수, 카사바, 대두, 플랜틴 바나나, 채소

라.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 개요 (2015-2020)

지구촌나눔운동의 활동 목표는 지구촌 이웃의 자립입니다. 르완다 사업소는 나루바카 섹터에서 이러한 자립이 실현된 상태를 “학습하고 서로 도우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르완다 주민조직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나루바카 섹터의 자립과 섹터 내 빈곤가구 감소를 위하여 자조그룹 조직 지원, 성인문해교육, 농업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의 수행 방향

비전	“학습하고 서로 도우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효과	나루바카 섹터 내 빈곤가구가 감소함		
목표	빈곤층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함		
목적	주민조직을 통한 자조활동이 증가함	자산이 확보되고 소득이 증가함	
활동	자조그룹 조직/지원	성인 문해교육	농업역량강화

본 사업에는 6년 동안 총 1,001,864,000원의 사업비(연평균 1.6억 원)가 투입되었고, 2020년 기준 직접 참여자 수는 1,310명이며, 사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간접 참여자의 숫자는 직접 참여자의 가족을 포함한 6,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나루바카 섹터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합니다.

Part 2.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말하다



가. 사업 참여를 통한 나와 우리의 변화



르완다 사업소 주민조직 담당 직원,

나이기 지키 샤카 리차드

(NAYIGIZIKI SHYAKA Richard), 인터뷰(2020)

우리 사업을 통해 나루바카 지역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협동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정신’은 공동 활동을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던 2015년에는 많은 주민이 저축모임 활동을 하면서 대표가 돈을 훔쳐 가거나 하는 등의 나쁜 기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협동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조그룹은 놀라운 수준의 신뢰와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었어요. 많은 자조그룹이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자조그룹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참여자들을 통해 나루바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참여자,

니란지자 자케린

(NYIRANZIZA Jacqueline), 인터뷰(2018)

옛날에는 여자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처음 조합비를 낼 때의 초심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은 조합비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우리 집엔 염소와 돼지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소를 사고 싶어요.

나. 사업의 차별성



2019년 르완다 사업소 파견 간사,

정민주

인터뷰(2020)

부끄럽지만 저는 지구촌나눔운동에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TV 광고 등의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동 결연’ 혹은 ‘난민 지원 사업’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르완다에 와서 사업을 함께 하다 보니, 국제개발에선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공여자(Donor)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경제적 지원이 끊어졌을 때도 참여자분들이 그들이 일궈온 방식으로 생계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은 지원을 하는 그 순간만큼 지원이 끝난 후 또한 중요히 여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20년 외부 평가팀 책임연구원,

니란사비마나 베난시에

(NYIRANSABIMANA Venantie), 인터뷰(2020)

르완다 곳곳에 있는 저축모임과 지구촌나눔운동의 자조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량강화 교육의 유무입니다. 자조그룹에 리사업의 차별성터집교육이나 문해교육, 농업기술교육이 더해지며 그룹의 결속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저축모임들은 문제에 봉착하면 그대로 활동을 멈추곤 하는데, 지구촌나눔운동의 자조그룹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활동을 지속합니다.

다. 10년 뒤의 나루바카

2016년 르완다 사업소 파견 소장,

김선미

인터뷰(2020)

르완다 사업소는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 증축, 마을 우물 개보수 등 단순지원 형태의 사업부터, 지역개발센터를 건축하고 주민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자조그룹을 형성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는데요, 10년 뒤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자조그룹들이 나루바카 섹터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주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끄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르완다 사업소 프로젝트 매니저,

과지라예수 에마브레

(TWAGIRAYEZU Aimable), 인터뷰(2020)

2029년의 나루바카는 르완다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있을 거예요. 10여 년 전, 지역 내에서 가장 가난한 섹터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나루바카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면 그때쯤이면 학교도 최소 6개 정도 있을 거고요, 시장도 3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지금보다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지구촌나눔운동과 같은 다양한 파트너들이 협력한다면 이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Part 2.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을 훑아보다



가. 사업을 그린 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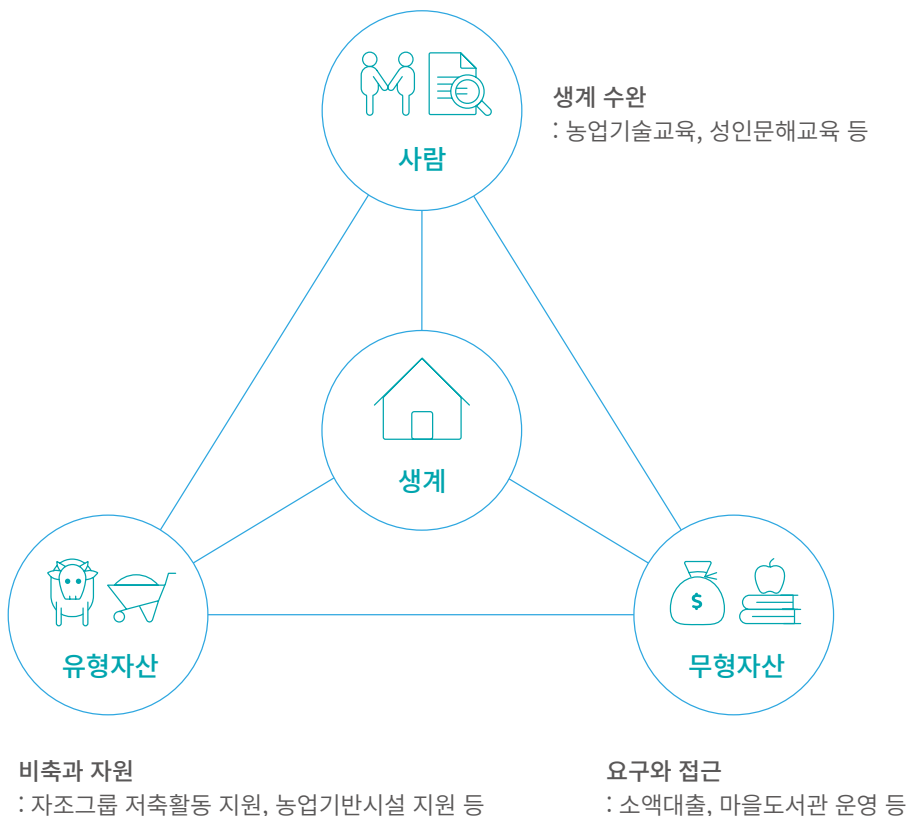
1. 지속가능한 생계(Sustainable Livelihood-Approach /Robert Chambers)

영국의 국제개발학자 로버트 챔버스는 지속가능한 생계를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예상 가능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삶”으로 정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오랜 기간 관찰하고 연구한 챔버스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방식은 단순한 임금노동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생계의 구성요소를 1) 생계 수완(livelihood capabilities), 2) 유형자산(tangible assets) 그리고 3)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나누어 바라보았습니다.◇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 사업 또한 주민들의 생계를 다면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Chambers, R. (1995)
Poverty and Livelihoods:
Whose Reality Counts?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7(1) pp.173-204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과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법



2. 지역경제 자립(Local Economic Self-Reliance / Hisashi Nakamura)

일본의 경제학자 히사시 나카무라는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 사람은 소수의 대상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자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자립의 세 가지 요인인 1) 순환/재순환 과정의 지속가능성, 2) 다양성의 증대, 3) 상호관계의 형성을 제시했습니다.◇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 사업은 이러한 자립의 요인들에 주목하여 지역발전 과정에서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 소득 활동 및 농작물 종류 다양화, 주민조직 사이의 상호 연대 활동을 통한 상호관계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Nakamura, H. (2009)
Quest of People Based
Development in Asia as Seen
by an Unorthodox Economist.
The 6th International Seminar
of Afrasian Centre for Peace
and Development Studies
(2020.9.6.), 야스토미 아유무
(2011/2018) 「단단한 삶」
파주: 도서출판 유투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과 지역경제 자립 접근법

지역 자립의 요인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에서의 적용
순환/재순환 과정의 지속가능성	- 친환경 농업 도입 - 토양 침식 예방을 위한 나무 심기 - 자조그룹의 자치활동, 공동 자산 형성 장려
다양성 증대	- 농업기술교육을 통한 작물 다양성 증대 - 소액대출을 통한 가축 구매 및 창업 지원(소득원 다양화)
상호관계 형성	- 자조그룹 내 공동활동 장려 - 정기회의 주치를 통한 자조그룹 간 정보교환과 협력 지원

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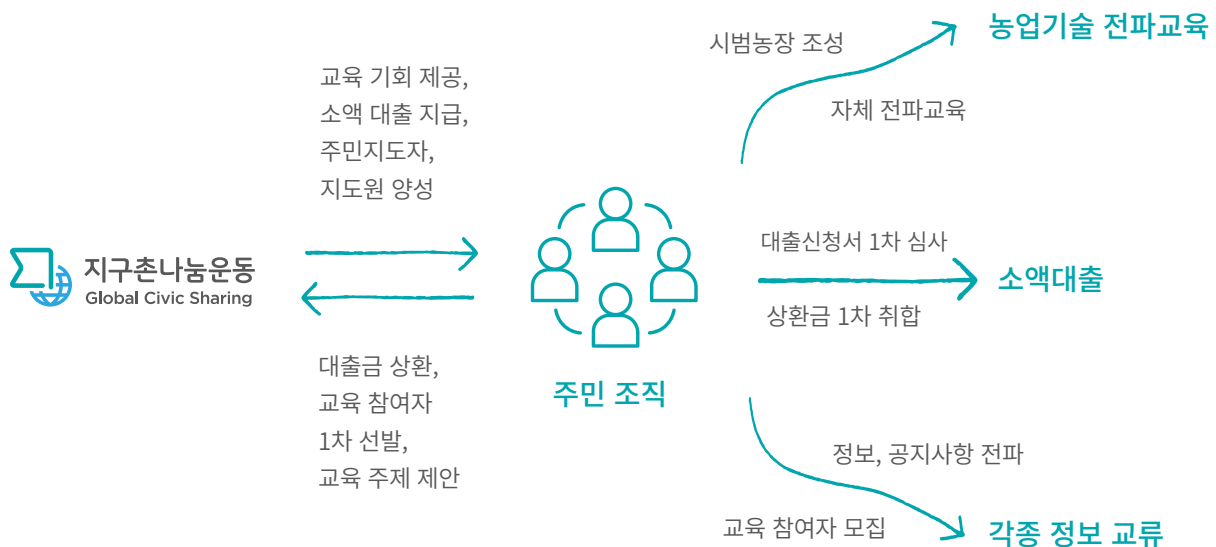
1. 자조그룹 조직·지원

자조그룹은 30~40명의 이웃이 모여서 함께 저축하고, 필요할 때 저축액을 대출하며 공동의 활동을 해나가는 모임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마을마다 최소 1개 이상 조직된 자조그룹을 통해 참여자들과 만납니다. 자조그룹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이나 주민지도자 교육 등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소액대출 또한 자조그룹을 통하여 운영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자조그룹 활동을 통해 지구촌나눔운동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지도자, 퍼실리테이터, 창업자로 거듭나며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당시 28개 그룹, 전체 419명의 참여자로 시작한 자조그룹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 2020년 기준 40개 그룹, 1,31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한 기수가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참여자 수 변화를 의미하는 참여자 그룹 유지율(83.9%→97.73%)도 함께 증가하며 그룹의 결속력이 강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조그룹을 통한 자립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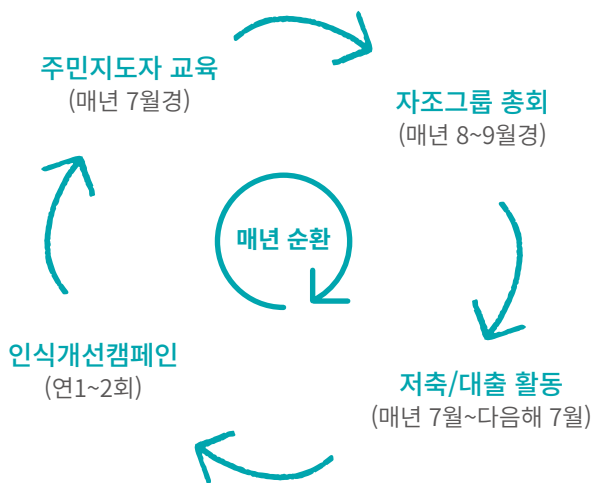


○ 주민지도자교육

자조그룹은 1년마다 회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매 기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조그룹 운영위원회(대표, 부대표, 총무, 감사 등으로 구성)를 대상으로 주민지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도자교육은 리더십, 봉사 정신, 지역개발, 갈등의 예방과 해소, 민주적 의사소통, 기록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자조그룹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민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자조그룹 활동은 참여자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진행됩니다. 여성 인권이나 가정폭력 예방, 독서문화 증진 등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연 1~2회 진행합니다. 특히 젠더 평등은 캠페인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자조 그룹 내 여성 참여 비율(37%)과 운영진 비율(34%)이 모두 낮았지만, 사업을 거듭하며 여성의 참여 비율과 운영진 비율은 각각 68%, 55%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조그룹 참여와 리더십 경험을 통해 여성들은 사업뿐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조그룹의 1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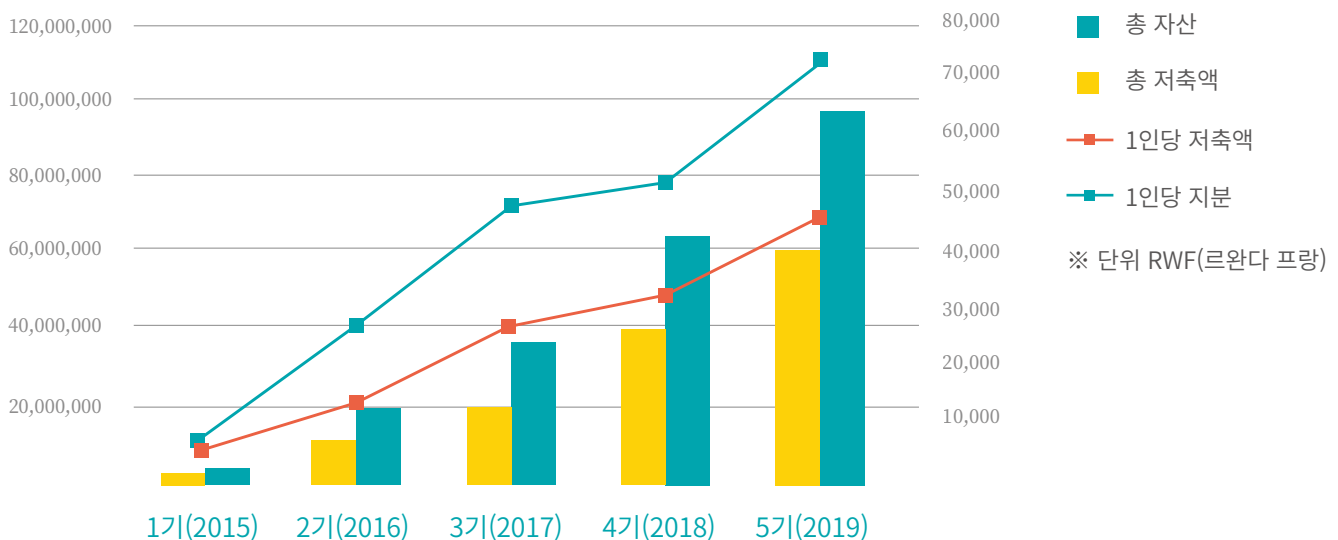


○ 자조그룹 활동 : 마을 저축 대출 활동(Village Saving and Loan Association)

자조그룹은 사업의 모든 활동에 함께하지만, 가장 주된 활동은 저축과 대출입니다. 자조그룹 참여자들은 함께 정한 저축 목표와 규칙에 따라 그룹별로 매주 1회 모여 최소 200프랑(약 220원)에서 많게는 2,000프랑(2,200원)까지 저축합니다. 그리고 학비, 병원비 등, 개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땐 그룹 저축금을 활용한 소액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 자산을 늘려나갈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도 가축과 같은 소득원을 팔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조그룹 1년간의 활동이 끝나면 자조그룹은 그룹원들에게 저축액과 이자를 배분(Share-out)하는 시간을 통해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음 회기를 준비합니다. 자조그룹이 커지면서 저축하고 나눠 갖는 돈의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꾸준히 저축과 대출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룹 전체의 자산 규모(3,479,430프랑→96,057,111프랑)와 1인당 지분(8,304프랑→71,637프랑)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1 르완다 프랑 = 1.1원 (2020년 12월 17일 기준)

자조그룹의 재정 변화



○ 소액대출

자조그룹 내부의 저축과 대출활동도 참여자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 소득을 높이거나 농업 활동의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지역 내 신용협동조합(SACCO)과 협력하여 저축 참여도, 교육 출석률, 대출 신청서의 구체성,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조그룹에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대출금을 1년 이상의 긴 상환 기간과 연간 4%의 낮은 이자 조건◇으로 지급했습니다. 대출금 지급 전후로는 대출금 활용처와 관련된 맞춤 기술교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대출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대출금은 소와 돼지 등의 가축구입 뿐 아니라 농산물 거래, 상점 창업 등 비즈니스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르완다 정부의 VUP(Vision Umurenge Programme) 대출 이자는 최근까지 11%였으나 2019년부터 2%로 낮아짐

소액대출 지급 현황 및 활용처

	수혜자 (명)			총 대출액 (르완다 프랑)	대출금 활용처 (각 활용처 대출액 비율)			
	여성	남성	계		가축 구입	농업	양봉	비즈니스
2016년	82 (36.6%)	142 (63.4%)	224	16,315,000	100%	-	-	-
2017년	139 (66.2%)	71 (33.8%)	210	11,400,000	55.4%	11.2%	11.3%	22.1%
2018년	237 (62.2%)	144 (37.8%)	381	11,200,000	63.0%	22.9%	-	14.1%
2019년	215 (65.7%)	112 (34.3%)	327	9,500,000	41.2%	30.7%	-	28.1%

○ 비즈니스/협동조합 교육

자조그룹은 돈을 저축하고 나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루바카 섹터는 아직 포장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시골 농촌 지역이라 참여자들 대다수는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본 사업은 참여자들이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농업에 주목하여 영농기반사업(Agri-business), 농업협동조합 교육, 선진지 현장학습을 통해 자조그룹이 농민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지구촌나눔운동은 주민주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참여자를 응원하고 보조했습니다.

지금은 자조그룹에서 시작하여 등록을 준비 중인 농업 협동조합 준비모임인 코푸이냐(KOPUINYA)와 정식등록을 마친 채소 생산자 협동조합 코아비냐(KOABINYA)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협동조합 모두 자조그룹에 기반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 아이디어와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먼저 시작된 코푸이냐는 수확기에 생산한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외부로 팔고, 정작 주민들이 먹을 식량을 비싸게 되사는 일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조그룹에서 모인 참여자로 구성된 코푸이냐는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여 보관하고, 나중에 공동체 내에서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아비냐는 하나의 자조그룹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사례로, 채소와 과일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식 협동조합 등록을 마쳤습니다.

코아비냐



코푸이냐



2. 농업 역량강화

참여자의 95%는 농부이며, 거의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은 힘들어지고, 기후변화나 대규모 병충해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나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에서는 40개 자조그룹, 1,310명의 참여자이자, 능숙한 농부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교육’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각 자조그룹에서 선출된 농민교사와 지역사회에서 선발한 농업지도원을 교육하고, 이들은 각자의 지역과 그룹으로 돌아가 그룹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전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대부분은 교실이 아닌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자조그룹은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해당 농기의 교육 대상인 작물을 심고 직접 기르며 학습합니다.



농업전파교육의 슬로건

What I hear, I forget
듣기만 하면 잊는다
What I see, I remember
보면 기억하게 된다
What I do, I understand
해보면 이해하게 된다

The Plant is the Teacher
우리의 선생님은 작물이다

○ 농업전파교육: 농민교사 양성

농민교사는 그룹별로 2명씩 선출되어 1년 간 활동합니다. 농민교사는 르완다에서 1년에 3번 순환하는 각 농기 직전, 사업소에서 준비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당 농기의 작물을 기르는 방법뿐 아니라 축산, 교수법, 토양관리, 관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르완다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협동조합이나 농산물 가공 회사 등을 방문하며 이루어지는 선진지 견학에서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적용했을 때, 혹은 농업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농업전파교육: 시범농장 운영

농민교사로 양성된 참여자는 각자의 그룹으로 돌아와 시범농장을 조성합니다. 이 농장에서 자조그룹원들은 “우리의 선생님은 작물이다”라는 슬로건처럼 직접 작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학습합니다. 농업전파교육은 매년 3회 반복되는 농기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작물을 주제로 진행되며, 작물을 선정할 때는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파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재배 기술을 알게 되더라도 늘 해오던 방식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작물 수확량과 판매 수익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범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파교육은 새로운 작물이나 재배기술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시범농장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분과 적용하지 않은 부분, 다른 대안적인 기술을 적용한 부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시범농장을 함께 경작하며 새로운 기술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농업전파교육을 통한 변화

카사바 수확량		강낭콩 수확량	
21t/ha (2017 지역 평균)	➡	40t/ha (2019 참여자 평균)	1.2t/ha (2017 지역 평균)
			➡
			1.4t/ha (2020 참여자 평균)
자조그룹 공동경작지 규모			
없음 (2015년)		➡	13.59ha (2019년)

○ 관개시설 및 저장고 지원

냐루바카의 농민들은 주로 농업용수를 비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 기후 변화에 취약합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할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가격이 낮은 수확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부족한 영농 기반시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르완다의 강수량은 매해 그 불규칙성이 심해져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목격한 지구촌나눔운동은 2단계 사업에서부터 물펌프, 물탱크, 점적관개시설과 같은 소규모 관개시설과 저장고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활동의 안정성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관개시설을 통해 현재까지 농지 9헥타르(ha)의 관개가 개선되어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성인문해교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나루바카 섹터 내의 성인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10%미만이고 40%가량의 성인이 문자를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장부 작성, 회의록 작성, 교육 내용 습득 등, 문해력이 필요한 자조그룹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주민들을 공동체 자립 사업과 평생학습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 르완다어 읽기와 쓰기 교육을 시작했고, 2단계 사업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가족계획, 보건위생, 성평등 등의 내용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문해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 문해교사 양성

자조그룹, 농업전파교육과 같이 성인문해교실도 주민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성인문해교사가 되고자 하는 주민 중 역량을 갖춘 20명을 선발하여 문해교사로 양성했습니다. 자신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에, 양성교육에서는 교실을 운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양성교육을 통해 ‘선생님’으로 거듭난 문해교사는 섹터 각지에 마련된 20개의 문해교실을 각자 이끌며 이웃들과 배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문해교사와 지역 청년들의 요청으로 영어 교실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해교실 운영 단계와 주요 활동

단계	준비	운영	마무리
활동	- 자문회의 - 문해교사 양성교육 - 문해교실 홍보	- 주2회 수업 운영 - 월간평가 - 모니터링	- 복습 - 문해인증시험 - 수료식

◦ 성인문해교실, 마을도서관 운영

성인문해교실은 사업 참여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문해교사가 이웃들을 교육하는 동안, 지구촌나눔운동은 월간시험과 모니터링, 출석 우수자 시상 등을 통해 교육생들이 끝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마을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문해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르완다 교육부의 성인문해교실 지침에 맞추어 7개월간 진행되어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는 정부의 문해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03명의 주민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1,938명이 정부에서 발급한 성인문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문해교실 외에도 지구촌나눔운동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나루바카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 교육이나 예체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 대응활동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범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뒤 르완다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되었고,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각종 모임과 교육 활동이 금지되는가 하면, 공항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한국에서 파견된 간사는 동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새도 없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르완다 사업소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적응해나갔고, 올해 계획된 사업 중 대규모 인원이 모여야 하는 행사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OICA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나루바카 공동체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활동도 빠른 시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 신속한 예방활동

르완다 사업소는 르완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표된 3월 14일 직전, 사무실과 교육장에 간이 손 씻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르완다 정부의 봉쇄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교육과 자조그룹 활동 등을 잠정 연기하고, 직원들도 순환 재택근무를 하며 새로운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르완다 국내에서 코로나19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전파되었지만 도시와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나루바카를 포함한 농촌 지역 주민들도 사회 경제활동을 위해선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 물품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의 제한으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건설 등의 일용직 노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도 지역 내에서 다수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지구촌나눔운동은 파트너인 KOICA와 협력하여 기존의 사업 예산 일부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편성, 5월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5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식량 지원을 진행했고, 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주민 3천여 명에는 기본 방역 및 위생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소나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손 씻기 시설과 비접촉 체온계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기본 방역역량을 갖추게 된 5월부터는 자조그룹 활동과 각종 교육이 서서히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주민조직 담당 직원 리차드의 모습



마스크를 쓰고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의 모습



○ 현지 직원 중심의 사업 운영

르완다 사업소는 2019년 초, 처음으로 한국인이 아닌 르완다인이 관리하는 사업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롭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된 콰지라예수 에마브레(TWAGIRAYEZU Aimable)는 2013년 르완다 사업소에 합류하여 냐루바카에서 7년 넘게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한 직원입니다. 그렇게 2019년부터는 르완다 출신의 현지 직원들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고, 한국에서 파견된 간사는 한국어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풍부한 사업 경험과 르완다와 냐루바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능숙하게, 그리고 현지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현지 직원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여러 소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현지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아 필요한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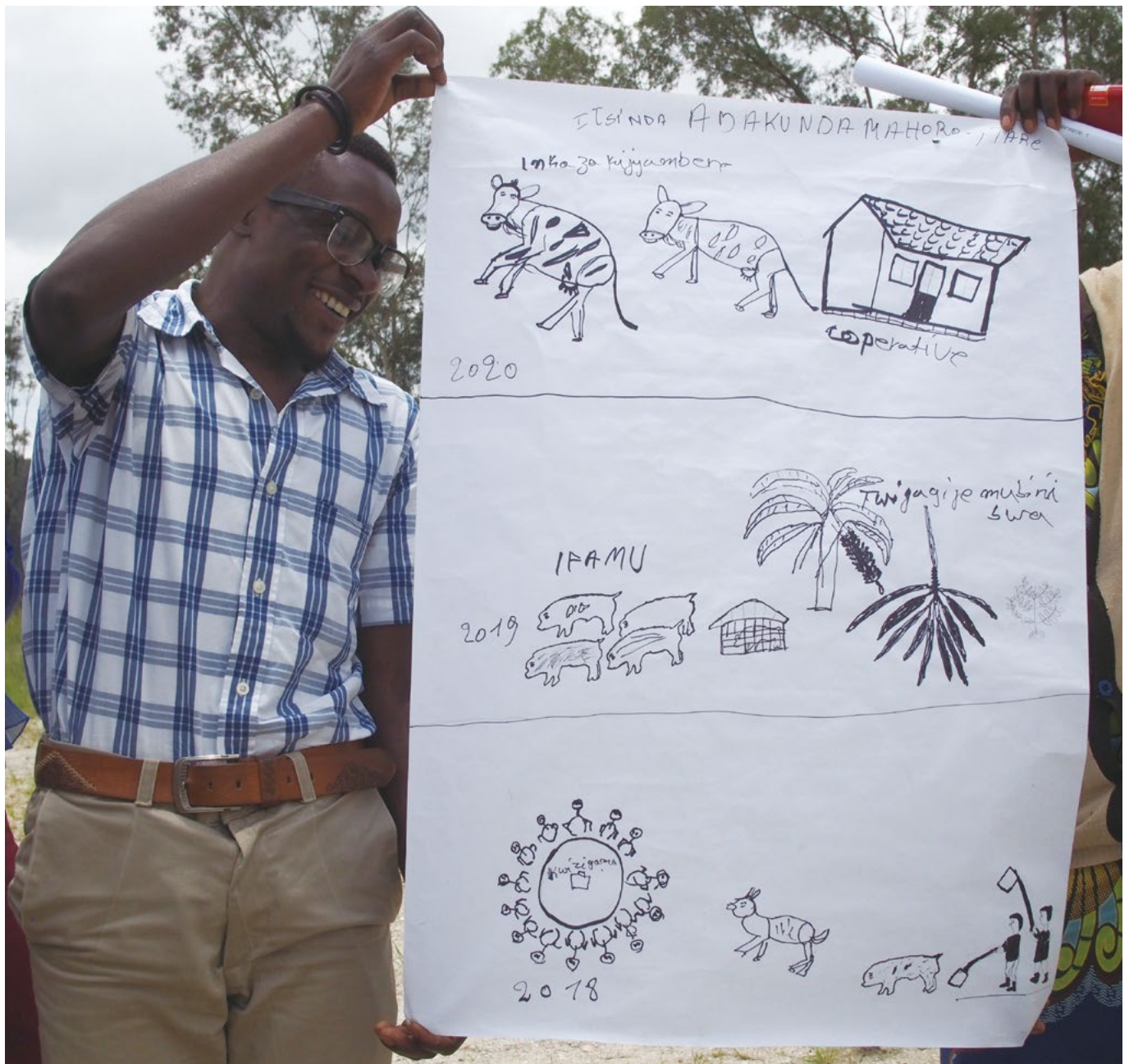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르완다 사업소는 현지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대면 교육이나 캠페인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라디오나 기본적인 휴대전화로도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전했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전화 연결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마을도서관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 휴관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토바이에 책을 실어 마을별로 다니며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을 진행할 때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참여자를 여러 조로 나누어 분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Part 4.

자립을 함께 그리다/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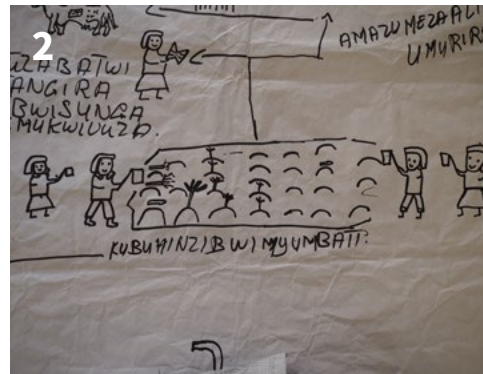
사례 1. 함께 그리는 미래: 그림으로 보는 자조그룹 투가니체레체조 키빙고의 활동 계획

매년 1회 개최되는 자조그룹 총회에서는 모든 자조그룹이 모여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의 활동 계획을 다른 그룹과 공유합니다.

2018년 총회에서는 다른 해와 달리 그림을 통해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그때 공유된 여러 계획 중 투가니체레체조 키빙고(TUGANICYEREKEZO Kibingo) 자조그룹이 직접 그린 활동 계획을 공유합니다. 투가니체레체조 키빙고 그룹 외에도 많은 그룹이 계획의 최종 목표를 소를 사는 것으로 많이 정했는데, 이는 르완다의 농촌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저축한다



저축액이 모이면 땅을 사서(빌려서)
함께 카사바 농사를 짓는다



카사바 농사 수입을 활용해서
각 그룹원 가정에 전기를 연결한다



개량된 종의 소를 산다

사례 2. 함께 짓는 미래:

자조그룹의 공동체 연대 활동

2018년, 자조그룹 참여자 이노센트씨의 자녀가 실수로 볼펜 뚜껑을 삼켜 큰 수술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노센트씨는 자조그룹에 도움을 요청했고, 각 자조그룹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16만 원을 이노센트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덕분에 수술은 잘 진행되었고 그 아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않은 자조그룹 대표들은 기금을 조성하여 이런 연대 활동에 활용하자고 결의했고, 2019년의 폭우로 인해 집이 무너진 마리클레르씨가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마리클레르씨는 57세의 나이로 자식과 손주까지 총 여덟 명의 생계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지만 자조그룹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왔습니다. 마리클레르씨가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한 자조그룹원은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았고, 지역 내 다른 NGO 단체에서는 양철 지붕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자조그룹이 조성한 기금과 노력 봉사를 위해 40명 넘게 모인 자조그룹원들의 힘이 더해져 마리클레르씨를 위한 새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자조그룹의 공동체 연대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사업의 미래

냐루바카 공동체는 지구촌나눔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가구의 비율이 상당하고, 최근 발생 최근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한 폭우나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도냐루바카 주민들과 함께하며 주민주도의 발전체계와 모두를 위한 농촌발전의 토대를 함께 다져가고자 합니다

1-2단계 사업의 결과와 계속 사업 방향

1-2단계 사업 결과	계속 사업 방향
취약계층 사업 참여 확대	기존 참여자의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자조그룹의 취약계층 포용성과 재난대응기금의 공동체성을 증진함
자조그룹 활동 안정화	- 자조그룹에 대한 지구촌나눔운동의 지원과 개입을 줄여나가면서 각 자조그룹의 강점과 약점에 맞게 조력함 - 성숙한 자조그룹의 소규모 사업체·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함
협동조합 결성 시도, 공동 경제활동 증가	각 협동조합 준비모임의 수준과 방향을 고려한 맞춤 지원을 통하여 협동조합이 정식 등록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함
주민지도자·지도원의 발굴, 역량강화	- 주민지도자교육의 대상을 모든 자조그룹원으로 확장, 개개인이 지역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역량을 확보함. 특히 취약계층 참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촉진함 - 기존 사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지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체 발전 위원회를 구성,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
농업기술전파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체계 구축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농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문해 역량을 강화함

감사의 말

자조그룹 에조헤자 루후하(EJOHEZA RUHUHA)의 대표,
무사비마나 프란신(Musabimana Francine)은
르완다어로는 ‘크위지라(Kwigira)’라 부르는 ‘자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립(Kwigira)은 공동체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냐루바카 공동체 자립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 냐루바카 주민 여러분과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지구촌나눔운동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앞으로도 주민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춤추며
자립의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